# 광주시, 올해 지역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 본격화

**내달 23일까지 참여기업 공모**
**성장 잠재력·기술력 31개사 선정**
**기업 맞춤형 금융·세제 등 지원**
**"지역 혁신선도기업 도약 발판"**

광주광역시가 지역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오는 6월23일까지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매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기업지원 시책이다. 현재까지 400여 개사가 선정돼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와 주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총 31개사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프리(Pre)-명품강소기업(13개사) △명품강소기업(18개사)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이번 모집은 기존 제7기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및 제11기 명품강소기업의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연장 포기·탈락·졸업한 기업의 결원분을 신규 지정하는 것이다.

선정 조건은 프리(Pre)-명품강소기업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명품강소기업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모집 기업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7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지정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평가는 기술 수준, 성장전략, 연구개발(R&D) 혁신역량,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준비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ESG 진단·상담을 받았거나 광주시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한 기업에 우대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제품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 고급화까지 다양한 맞춤형 협업·자율 지원이 제공되며, 광주시 경영안정자금(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등 금융·세제·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지역혁신선도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062-602-7222)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와 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광주의 지역경제를 이끌 핵심 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산업은행 서남권투자금융센터 브이런치 광주 스페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1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열린 산업은행 서남권투자금융센터 "V:Launch 광주 스페셜 세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대구시, 3년연속 고향사랑기부로 '달빛동맹'

**양 도시 공직자 320명 상호 기부**
**민주·인권 공통 가치 공유·협력**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공직자들이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에 상호 참여하며 '달빛동맹'의 연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올해로 3년째 맞는 '달빛동맹 상호 기부'는 2023년 100명, 2024년 122명에 이어 올해 총 320명의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 양 도시 간 연대를 더욱 강화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각각 5·18민주화운동과 2·28민주운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와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며, 지난 수년간 행정·경제·산업·문화·청년·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다.

이 같은 교류·협력은 △2023년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2024년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 체결 등으로 이어지며 실질적 동서화합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 또한 양 도시 공무원들이 '고향사랑e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상대 도시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간 연대와 공감,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와 대구는 함께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실천하며, 내일을 설계하는 도시"라며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고향사랑기부가 따뜻한 동행이자, 지속할 수 있는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 전남도, 벼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내달 20일까지…7종 피해 보장**

전라남도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까지 보장하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오는 6월20일까지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또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벼멸구, 도열병 등 병해충 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전남도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기준 1ha당 약 54만 원으로, 농업인은 10%인 5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유기 인증 친환경 필지는 100%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가는 6월20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 광주시, 24일 시청서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광주광역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야외광장에서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민의 날'과 연계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를, 가족을 지키는 안전 함께 해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시, 광주경찰, 대한안전연합, 세이프온, 극단 파랑새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체험과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안전체험 한마당에는 △유퀴즈 온 더 안전(안전퀴즈풀이) △4분의 골든타임(심폐소생술·기초응급처치 배우기) △SOS 생존의 기술(구조구난 매듭법, 수상안전, 생존팔찌 만들기) △이동안전체험버스(화재·지진 대피체험) △오늘은 내 마음도 만세!(스트레스 측정, 걱정인형 만들기, OX퀴즈) △희망틔움 광주경찰(실종예방지문등록, 마약·성범죄 예방활동) 등 안전교육과 체험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된다.

스탬프 투어와 함께 경찰관·소방관 복장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된다. 이번 체험은 모두 무료로 추진된다.

정상아 기자